

# 손흥민, 토트넘과 1년 더 같이한다

### 토트넘 '1년 연장 옵션 발동'... 기간 내년 여름까지 구단 11년 헌신... 431경기 169골로 '레전드' 반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하겠다고 마침내 발표했다.

이로써 손흥민과 토트넘은 2026년까지 동행을 이어간다.

토트넘 구단은 7일(한국시간)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에 대한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면서 "계약은 이제 2026년 여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다가 2015

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하며 EPL에 진출한 손흥민은 이번 계약 기간을 포함하면 11년 동안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된다.

토트넘 소속으로 통산 공식전 431경기에 출전해 169골을 넣은 손흥민은 구단 통산 득점 4위에 오를 정도로 토트넘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2021-2022 시즌 EPL 공동 득점왕(23골),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

등의 영예를 안으며 유럽 축구 무대에서 한국을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섰다. EPL 득점왕과 푸슈카시상 모두 아시아 선수 최초로 현재까지 유일한 대기록이다.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로 꼽히는 EPL에서 2016-2017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고, 토트넘 소속 선수로는 역대 가장 많은 도움(68개)을 올리기도 했다.

손흥민은 2023년 8월부터 소속팀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차면서 구단 '레전드' 반열에 들었다.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토트넘과 계약을 맺을 때 5년

계약을 체결했던 손흥민은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기간을 늘렸다.

2021년 7월 맺은 두 번째 재계약 기간이 올해 여름까지였으며, 여기에 1년 연장옵션이 포함된 바 있다.

이날 1년 연장 옵션 행사를 발표하며 토트넘은 "손흥민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글로벌 스타'가 됐고, 현 시대 토트넘의 위대한 선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2019년 4월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EPL 경기에서 현재 토트넘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개장 1호 골' 주인공이 되는 등 "여러 상징적인 골을 넣으며 우리의 역사에 자리 잡았다"고 치켜세웠다. 연합뉴스



지난 7일(한국시간) EPL 토트넘 홋스퍼 구단은 손흥민과의 1년 계약 연장을 발표했다.

토트넘 홈페이지

## 신년설계 최기창 제주시체육회장

###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 5개 역점사업 추진 목표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최기창 제주시체육회장은 올사년 한해 종목별 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체육회의 어려웠던 점을 의식한 최 회장은 "올해는 모든 약운을 훌훌 털어내고 새로운 사명으로 5가지 역점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장 먼저 효율적인 지도자 배치를 통해 종목별 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유소년스포츠 육성을 통한 선순환체육시스템 구축 >종목단체별 공동사무실과 전담 직원 배치 >선진체육 사례



연구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스포츠 산업단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어 종목단체 사무국장의 처우를 개선해 체육행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제주시체육회는 다시 뛰는 자세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호시우보의 모습을 보이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주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 LA다저스 김혜성 영입 평가는 B+ "수비 수준급"… 타율 0.270·9홈런·27도루 예상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김혜성 영입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으로부터 평점 'B+'를 받았다. 2024시즌까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던 내야수 김혜성은 지난 4월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달러(약 324억원)에 계약하고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

ESPN은 먼저 이름이 비슷한 김하성과 다른 선수라는 점을 설명하며 "김혜성의 수비와 주루 능력은 김하성과 비슷하지만, 파워는 다소 약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금액 자체는 구단 입장에서 다소 유리한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ESPN은 계약 전 김혜성의 계약 규모를 3년 1650만달러로 예상했으나 실제 계약은 3년 기준 1250만달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김혜성의 수비는 골드 글러브를 받은 김하성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수준급이고 다재다능하다"며 "타격이 받쳐준다면 유틸리티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



다저스 구단의 SNS 환영 인사. 연합뉴스

라고 전망했다. 김혜성의 2025시즌 성적에 대해서는 '클레이브포트닷컴'이라는 매체의 전망을 인용해 타율 0.270(562타수 152안타), 출루율 0.337, 장타율 0.388에 도루 27개, 홈런 9개를 예상했다. 연합뉴스

## 전지훈련 축구 꿈나무 제주서 맞붙는다 태권도, 청소년 올림픽 '3대 종목' 입성

### 제주시, 전국축구리그 개최

제주시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외도축구장, 사리봉축구장 등에서 '동계전지훈련팀 전국축구리그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제주로 동계전지훈련을 온 전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 간 리그전이다.

초등부 24개 팀(도내 7, 도외 17), 중등부 20개 팀(도내 4, 도외 16) 등 총 44개 팀 선수와 감독

16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게 된다.

시는 이번 리그전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 간 실력을 겨루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 6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유소년 축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육상·수영 이어 메달 11개

태권도가 2026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리는 하계 유스올림픽(청소년올림픽)에서 3대 메달 종목이 됐다.

8일 세계태권도연맹(WT)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다카르 유스올림픽 메달 종목 및 참가 선수 쿼터를 결정하면서 태권도에는 11개의 금메달을 확정했다.

25개의 정식종목 중 태권도는 육상(38개)과 수영(28개)에 이어 세 번째로 금메달 수가 많다. 연합뉴스

다카르 유스올림픽 태권도에는 남녀 각각 5개의 체급(남자 48kg급, 55kg급, 63kg급, 73kg급, 73kg초과급과 여자 44kg급, 49kg급, 55kg급, 63kg급, 63kg초과급)에 처음으로 혼성 단체전이 메달 종목으로 채택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에 발맞춰 혼성단체전 세계대회를 매년 주최해 왔고, 2020 도쿄·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시범경기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나아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정식종목에 포함되도록 IOC와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축 임**  
**취 임**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강 덕 부**

제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인효원 이사 일동**

**축 단**  
**승 단**  
**태권도 공인9단**

**양 흥 기**  
 (제주도태권도유단자회 감사)

태권도 공인9단으로 승단하심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도태권도유단자회**  
 회장 **강창희** 외 회원 일동

**축 상**  
**수 상**  
**해양수산부장관표창**

**고 희 전 L**  
 (한경라이온스클럽 이사)

해양수산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한경라이온스클럽**  
 회장 **김명철** L 외 회원 일동

**축 상**  
**수 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조 인 자**  
 (분교 6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부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장윤식** 외 회원 일동